

6월 지육시세는 3,600원/ 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따뜻한 5월이 되었지만 양돈 농장 경영주들의 마음은 춥기만 하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 왔지만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농장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까지 뽕뽕 묶어놓아 돼지 지육가격은 언제 4,800원인 때가 있었나 생각이 나지 않고 온통 밀려올 FTA 대책 요구와 농가들의 원성이 가득 메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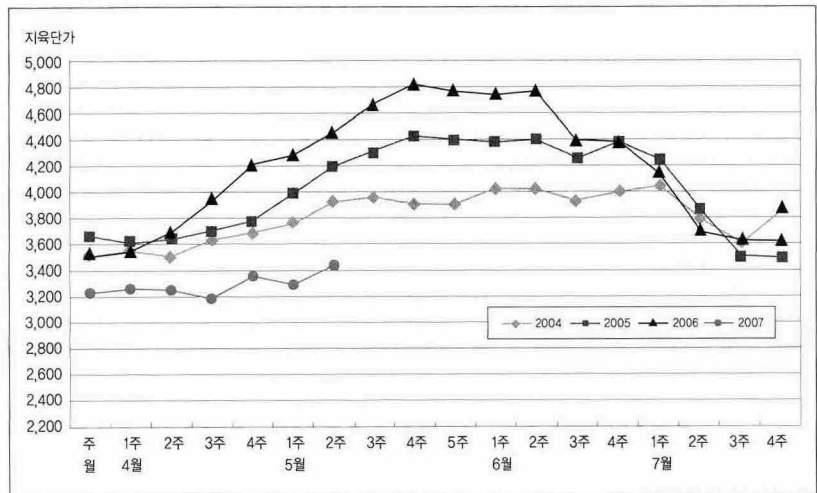
금년도 돈가는 이미 수입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가 과잉 공급되면서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농가들은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비는 올라가고 돼지가격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FTA이후 한국 양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사료인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가축분뇨의 농지 환원을 위한 분뇨탱크를 정부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MSY 향상을 위하여 종돈의 청정화 대책과 분만 자동사의 올인 올아웃 시스템 도입과 돈사 환경 제어가 가능한 돈사시설로의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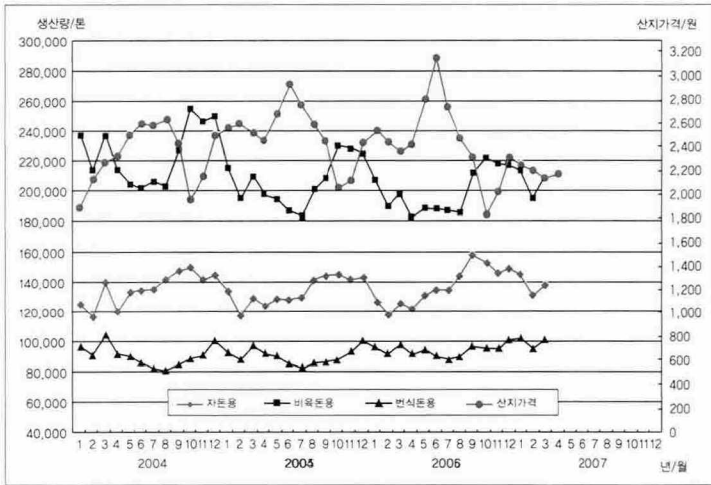
또한 소비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국산 돈육의 안전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돈육 생산으로 믿고 찾는 국산 돈육을 만들 때 외국산 돈육으로 국내산 돈육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부족한 생산비 차이는 다시 돈열 청정화를 통한 일본 수출이 가능해져야 현재의 양돈 농가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금년 상반기처럼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가 시장을 점유한다면 한국 양돈의 희망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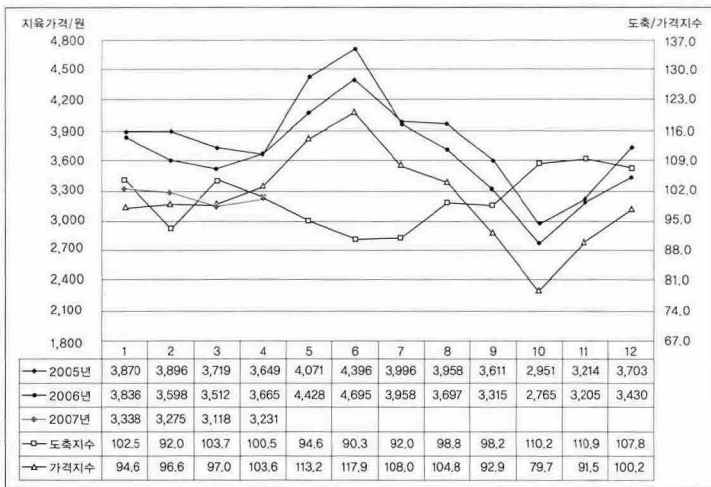
금년 5월의 시장 동향은 국내산 출하 물량은 감소하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않기는 어렵다. 가능한 방법은 소비량이 공급 증가량 만큼 증가해 줄 경우 뿐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재 소 가격은 600kg 한우 암소가 1두당 전년 5월보다 67만원 하락한 477만원을 기록하여 12.3% 하락하고 있으며 돼지 가격은 100kg 1두당 7만원 하락하여 221천원을 기록하여 24.1%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육류 시장의 공급 초과와 이에 따른 소, 돼지 가격의 동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돈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 보다 5~6% 증가하여 향후 국내산 돼지고기 출하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산 돼지고기의 본격적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시장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7년 6월 전국 주요 도매 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5월보다는 강세를 띄지만 전년보다는 많이 하락한 지육 kg당 3,600원을 전후하여 형성될 것으로 보여 5월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보이며 점차 오르고 있지만 수입 돼지고기 수입량이 누계로 전년보다 63%로 증가한 109,471톤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 쇠고기 또한 전년보다 64% 증가하여 76,432톤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산 돼지 도축두수는 2007년 4월까지 누계두수로 4,515,043두로 전년보다 4.0% 증가하고 있으며 소 도축두수는 누계두수로 228,423두로 전년보다 7.7%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와 돼지고기 육류 공급량은 2006년 4월까지 392,630톤에서 2007년 4월까지 477,791톤을 공급하여 전년보다 21.7%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류 공급은 전년보다 약 85,000톤이 증가하여 월평균 21,300톤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급 초과와 소비의 증가는 전년보다 약 60% 이상을 증가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이다.

어떤 시장도 전년보다 20%를 초과 공급하고서도 가격이 하락하지